

주제	장애와 질병의 심리적 요인
가이드	장애와 질병의 차이 심리적 요인

장애와 질병의 차이

장애와 질병이 각각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우리가 주로 심리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는 질병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. 주로 장애라는 단어나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.

왜냐면 질병이라는 단어는 병리학적인 상태, 즉, 유전적인 결함이나 스트레스, 균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인 문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.

이에 반해 장애는 장기간 지속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로 손상의 결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한이나 결여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이 두 가지 개념을 찾아보면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질병은 조금 더 신체적이고 증상이 예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, 장애(여기서의 장애는 신체적 장애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)는 전반적인 기능의 저하 혹은 신체적으로는 정상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이러한 특징을 두고 봤을 때 과연 질병에 심리학적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, 학생이 예시로 작성한 스트레스 말고는 큰 영향을 줄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.

유전적인 요인도 심리학적 요인으로 본다면, 유전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
심리적 요인

장애는 사실 너무나도 큰 범주이며 너무나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나이, 성별, 부모와의 애착관계, 자존감, 자신감, 사회적 지지 등 너무나도 많은 요인들이 장애의 발생과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, 유전적인 결함이나 호르몬의 이상 등도 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우리가 자주 듣는 우울증이라는 정신 장애도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, 특정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것들을 모두 생각해보았을 때 어떠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.

학생이 조금 더 찾아보고 특정 장애 두 가지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탐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